

“더불어 사는 가치로 이웃 사랑 실천하겠다”

최명숙 광주현대병원 외과전문의

마음여행기 엮은 책 출판...수익금 노숙인에 기부
여행지 깨달음 글·그림으로 표현 주제적 삶 강조

“외과의사이자 한 명의 사람으로서 더불어 사는 가치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최근 자신의 마음여행기를 책으로 출판하고, 이 책의 판매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외과의사가 있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주인공은 광주현대병원 최명숙 원장.

최 원장은 광주의 첫 여자 외과 전문의로 특히 유방암 전문가로서 한국유방암학회, 일본 유방암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병에 대한 진정한 치유는 환자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포괄해야 하는 것을 알기에 수술과 더불어 암환자를 위한 영성상담 및 치유 명상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출판한 ‘요요, 나는 나를 기억한다’는 늘 스스로 먼저 기도하고, 명상하며, 걷고 쓰

는 나날을 보내는 최 원장의 가장 솔직담백한 마음 여행기다.

의사생활을 하며 틈틈이 다녀온 여행지에서 느낀 삶의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 등 현장에서 보고 느낀 날 것 그대로의 감성을 쓰고, 그린 그림을 한편의 책에 담았다.

책에는 지난 2008년 인도 푸네에서 시작해 2018년 크림반도에 이르는 10여년에 걸쳐 이뤄진 그의 여정과 휴머니티를 그리고 있다.

최 원장은 “육십갑자를 돌아 환갑의 나이에 들어서니 내 삶의 변형을 의미있게 하고 싶은 터닝 포인트에 접어들었다”면서 “나이가 먹어도 사람은 늘 성장하고, 또 바뀌게 되는 만큼 나 자신도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서 마음여행기를 책으로 엮었다”고 말했다.

특히 책에 밝힌 여정 곳곳에는 그가 사람과 사



람 사이에서 얻은 깨달음과 사랑의 의미에 대해 담담하고 솔직하게 써내려갔다.

실제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출판할 때 마다 그랫웃 지역의 노숙자들을 위해 모든 책 판매 수익금을 모두 기부하기로 했다.

책의 프롤로그에 그는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 많은 것을 포기하고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결국에는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내 형제라는 것.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내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사랑이요, 진리요, 생명에의 외경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표현하며 더불어사는 나눔의 가치를 강조했다.

최 원장은 “진정한 나눔의 의미는 어려운 이웃에 기부를 하는 것과 재능기부, 어려운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한번 잡아 주는 등 자신의 개성대로 나답게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기쁘게 열 사람에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40세 이후부터 명상과 자기 성찰을 수행하고 있다는 최 원장은 늘 좋은 꿈을 꾸고 인생을 설계하는 젊은 층이나, 퇴직을 맞거나 환갑을 맞아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모두 자기 주제 삶을 사는 것이 곧 나눔과 사랑 실천의 가장 초석이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로 사랑하는 일은 주고 받기의 균형이다. 이웃과 함께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면서 “의사가 환자를 사랑하듯 당연한 사랑을 실천하다보면 어느새 홀익인간이 돼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송지기자



해양수산부, 환경보전해역 대국민 홍보 시범투어 성료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의 4대 환경보전해역 홍보활동에 나섰다.

지난 2일 해양수산부로부터 ‘환경관리해역 관리 및 2018년 해역별 계획 이행평가 연구’를 수행 중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안양대학교, 그린에코스(우)는 환경보전해역의 오염 개선 및 해역이용 활성화와 홍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 행보로 완도·도암만 일대를 찾았다.

‘강진만을 속독하다’를 주제로 추진한 이번 투어 프로그램은 강진군하수처리장 시찰을 시작으로 강진만생태공원, 가우도, 까막섬, 마량항 강진군수협위원장, 강진청자박물관 등 돌며 강진만으로 유입되는 하수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환경보전해역의 대국민 홍보 설계에 역점을 두고 진행했다.

/임제만기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연구실 한기원 박사는 “이번 프로젝트는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진만 등 4개의 환경보전해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지도는 매우 낮는데 이를 견인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진군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수가 막만, 보성 득랑만, 함평만, 완도·도암만은 전라남도의 다양한 해양자원과 더불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강진만을 중심으로 조성된 문화관광 요소들에 더해 해양환경을 테마로 한 해양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환경보전해역을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명희 전남도의원, 호남유권자연합 최우수의원 선정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3일 ‘2019 호남유권자연합 최우수 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호남유권자연합은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수상자 8명을 선정하고 이날 시상식을 열었다.

호남유권자연합은 2019년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호남 지역 도의원 가운데 윤명희 의원을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

윤 의원은 정확한 자료 분석과 대안제시를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전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와 정책의제를 입법화해 지역경제 문제 해결에 큰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의원은 “호남 유권자분들이 직접 선정해 주



신 상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남유권자연합은 정치개혁과 도덕성 회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한 해 동안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공적을 일궈낸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을 선정해 매년 표창해 오고 있다. /임제만기자

호남대, 중국 하북공정대 방문단과 교수·학생 교류 협의

호남대학교는 지난 4일 중국 하북공정대학교 왕옌린 학장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과 교수·학생 교류에 관한 협의를 가졌다.

박상철 총장은 이날 학교를 예방한 하북공정대학교 관리공정 및 경영대학 왕옌린 학장, 스포츠 및 건강공과대학 원위엔 학장, 건축 및 예술대학 런홍귀 부학장과 환담을 통해 석사과정 학생 파견과 교수진 교류, 단기연수 등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다.

하북공정대학교는 하북성 한단시에 위치한 4년제 본과대학교로, 지난 5월에 호남대와 포괄적인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방문단은 박상철 총장을 예방한 뒤 손완이 국제교류본부장과 세부적인 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IT스퀘어, 체육관, 생활관 등 교육시설, 생활시설 현지를 답사했다. /최권범기자



광주도시공사, 김장김치 3천500kg 소외계층 전달

광주도시공사(사장 노경수)는 지난 4일 도시공사 임직원 및 광주녹색어머니연합회, 어린이안전학교, 그루터기, 송광복지관, 금호복지관, 시영복지관 등에서 약 150여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3천500kg의 김장을 담아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이날 김장김치를 전달 받은 복지관 관장 등은 “도시공사에서 매년 김장김치를 나눠줘 저소득

계층의 겨울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사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년 함께 해주신 자원봉사자 분들께 감사하다”며 “겨울철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역의 사회단체들과 함께 정성으로 담은 김장김치와 따뜻한 온정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민기자



농협전남노조 ‘베스트 상사상’ 이상진·박성범 지부장 수상

농협 전남노동조합(위원장 안종팔)은 최근 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베스트 상사상’과 ‘휴머니스트상’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베스트 상사상’은 성숙한 노사관계, 타인을 위한 배려, 함께하는 삶을 살아온 선배에 대해 조합원의 추천과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남도 조위원장인 상을 주고 있다.

지난 30년간 동료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해 큰

무지마다 후배들에게 귀감이 된 이상진 농협 나주시지부장과 박성범 농협 해남군지부장이 ‘베스트 상사상’ 공동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휴머니스트상’은 봉사와 배려, 효행실천, 헌혈 등을 해온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만장일치로 1명을 선정해 주는 상으로 올해 첫 도입됐다. 후배직원들의 멘토역할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활발히 해온 김경진 농협은 행 마케팅추진단 차장이 받았다. /문철형기자

하충식 한마음창원병원 이사장, 모교 조선대에 22억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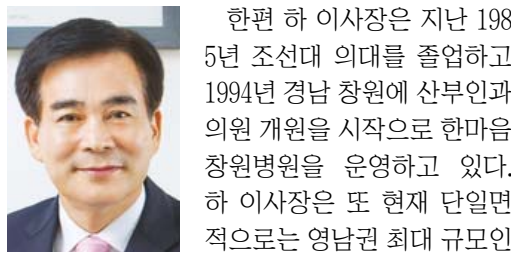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13회 졸업생으로 의과대학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하충식 한마음창원병원 이사장이 모교에 12억원 규모의 건축기금과 장학금을 추가로 기부했다.

하 이사장은 5일 조선대 본관 소회의실에서 민영돈 총장과 학교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건축기금 10억원과 장학기금 2억원을 기탁했다.

하 이사장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조선대에 10여억원의 장학금과 건축·연구기금을 전달해 왔다. 앞선 기탁금에 이날 추가로 기부한 12억원을 합하면 총 22억의 발전기금을 모교에 기탁하게 된다.

이는 조선대 동문 개인이 낸 기부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날 하 이사장은 동구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 단도 만나 내년부터 저소득층, 취약계층아동을 위한 문화축제행사에 동구지역 아동 400여명도 함께 초청하기로 논의했다.



한편 하 이사장은 지난 1985년 조선대 의대를 졸업하고 1994년 경남 창원에 산부인과 의원 개원을 시작으로 한마음 창원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 이사장은 또 현재 단일면적으로는 영남권 최대 규모인 병원을 2021년 3월 중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또 지역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동들의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원해 왔고, 이들을 위해 계절별로 연간 4회에 걸쳐 다양한 문화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이 같은 공을 인정받아 지난 2011년 제1회 국민이 추천하는 국민추천 국민포장을 수훈 받았으며, 2019년 어린이날 기념 국민추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조선대는 지난 2015년 9월24일 하 이사장에 명예경제학 박사학위를 수여했으며, 같은 해 12월22일에는 자랑스러운 조대인상을 수여했다. /최권범기자

최선은 광주여대 미용과학과 교수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선정



로서 연구에 착수하게 됐다.

사업 연구주제는 ‘한국형 홍차 가공기술 개발 및 제조공정 표준화’로, 명인신광수차, 농협회사법인 가천산방 주식회사, ㈜고반 등과 함께 인도 다즐링, 중국 기문, 스리랑카 우바에서 생산되는 세계 3대 홍차와 비교해가며 연구할 예정이다.

최 교수는 “이번 농림부 과제를 통해 참여기업들과 함께 국내 유일의 재래종 차나무를 가지고 500년의 전통 방식의 제다기술을 과학화 현대화해 세계 3대 홍차를 능가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 한국 홍차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광주여대 산학협력단의 연구 경쟁력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권범기자



담양보건소, ‘세계 에이즈의 날’ 캠페인

담양군은 제32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최근 담양읍 5일장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과 에이즈 바로알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100년의 검색보다 한 번의 검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소 관계자 40여명은 피켓을 들고 나서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배부하며 에이즈 예방과 무료 검사를 독려했다. 또한 올해 수능을 치른 창평고등학교 외 관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에이즈 예방 교육을 실시,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성 인식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

김순복 담양보건소장은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조기 감염인을 발견해 치료, 교육할 수 있도록 예방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광주대 축구부 이종민씨, 발전기금 쾌척

한국프로축구 K리그에 진출한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축구부 소속 이종민(2년) 선수가 학교에 발전기금을 쾌척했다.

성남FC 입단을 앞둔 이 선수는 지난 4일 학교 점권실에서 모교 발전과 후배 양성에 사용해 달라며, 김혁중 총장에게 500만원의 발전기금 약정서를 전달했다.

광주대 축구부 주전 공격수로 활약한 이 선수는 2019 KUSF 대학축구 U-리그 6권역 우승과 광주시 축구협회장기 3년 연속 우승을 이끈 주역이다. 특히 볼 트래핑과 드리블, 스피드와 헤딩력을 갖춘 만능 공격수로 평가받으며, 올해 리그에서 12경기 12골로 무서운 득점력을 선보이며 득점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최권범기자

결혼

●이상현(신성세탁소 대표)·정순덕씨 장남 관형(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 합정견조감독관), 주윤돈·송영순씨 차녀 은지양=15일(일) 낮 12시 30분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42(아이스케이 호텔) 아이스케이 더파티웨딩홀 4층 아모르홀.

동문·동창회

●광주서석고등학교 2회(회장 이효선) 송년의 밤=7일(토) 오후 6시30분 벨트리호텔(구 하딩크 호텔·광주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문의 오석진 사무총장 010-3615-8192.

등산

●담양농협(조합장 김범진) 여성산악회 12월 제75차 산행 고창 선운산=7일(토) 오전 8시 담양농협 본점 출발, 문의 박민경 회장 010-4615-4897.